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7월 미 생산자물가, 전월 비해 0.1% 상승... 예상치 미달

[미국 금융]

- WSJ: 올해 2분기 미 기업들 실적의 특징
- Bloomberg: 생산자 물가 상승 둔화에 주식 상승세

[미국 대선]

- CNN Business: 카말라 해리스의 선거 캠페인 주요 입장들
- WSJ: 많은 CEO들, 미 대선 후보자 놓고 고민한다

[비자]

- Bloomberg 사설:운이 결정하는 H-1B 추첨 제도 고쳐야 한다

[원유]

- WSJ: IEA, "중국 석유 수요 둔화, 글로벌 전망에 부담"

[글로벌 경제]

- Bloomberg: 세계 무역 안정세지만 곧 '관세 전쟁' 커진다

[전기차]

- Bloomberg: 영국 자동차 공급업체, 전기차 보조금 재도입 촉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스타벅스, 현 치폴레 CEO를 차기 CEO로 임명
- Bloomberg: 파라마운트, 인력 감축 시작... 전통 TV 산업의 쇠퇴 탓
- CNN Business: 홈디포에 드리운 경제 불황
- CNBC: 중국 전기차 회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충전 속도의 배터리 발표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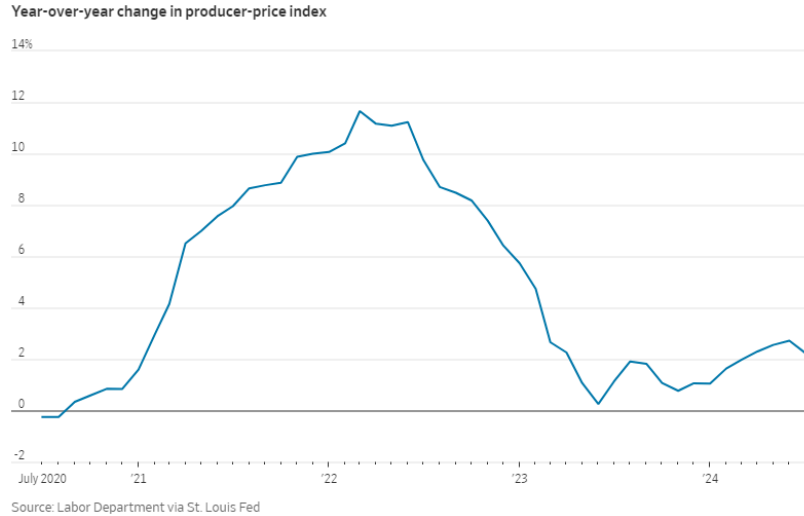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U.S. Producer Prices Rise 0.1% in July, Below Expectations 7월 미 생산자물가, 전월 비해 0.1% 상승에 그쳐... 예상치 미달

- 7월 미 생산자 물가가 예상치 보다 적게 올랐는데 지난달 보다 0.1%만 상승해 경제에 대한 인플레이 압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코노미스트들 대상 설문에서는 시즌 조정치로 0.2%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 1년전 동월에 비해서는 2.2% 상승해 올해 3월 이후 연간 상승률 폭으로는 가장 적었다. 6월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전월에 비해 조정치 변동 없이 0.2% 상승됐다.
- 7월의 식품과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물가도 예상치 0.2%를 밑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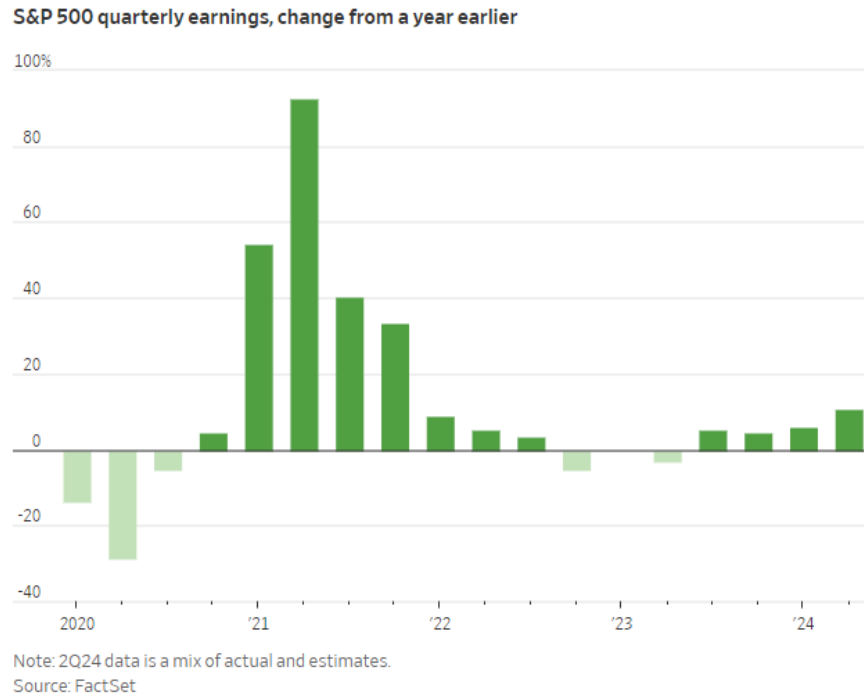


WSJ 기사

[미국 금융]

WSJ: 5 Big Takeaways From This Earnings Season
올해 2분기 미 기업 실적의 특징

- FactSet에 따르면 S&P500 기업들의 실적은 전년에 비해 10.9% 상승해 6월 말 예상치를 넘었으며 지난 2년 동안 분기별로는 가장 큰 실적을 보였다. 문제는 매출(revenue)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 이는 고객들이 소비 지출에 신중하기 때문이라는 것. 예컨대 맥도날드 고객들은 더 싼 품목을 찾고, 스타벅스와 치폴레 등이 매출이 줄었다.
- 이와 관련 고소득 쇼핑객들도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점이다. 명품 시계와 보석, 의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옛말이다. 루이비통, 디올 등의 매출은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다.
-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은행들이 압박을 받고 있고 사람들이 채용자를 받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신용 카드 등에 대한 연체율이 늘고 있다.
- AI에 대한 성과는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즉각 나타나지 않아 주가가 내려가고 있지만 빅테크들의 AI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 한편 분석가들은 올해 실적이 10.3% 증가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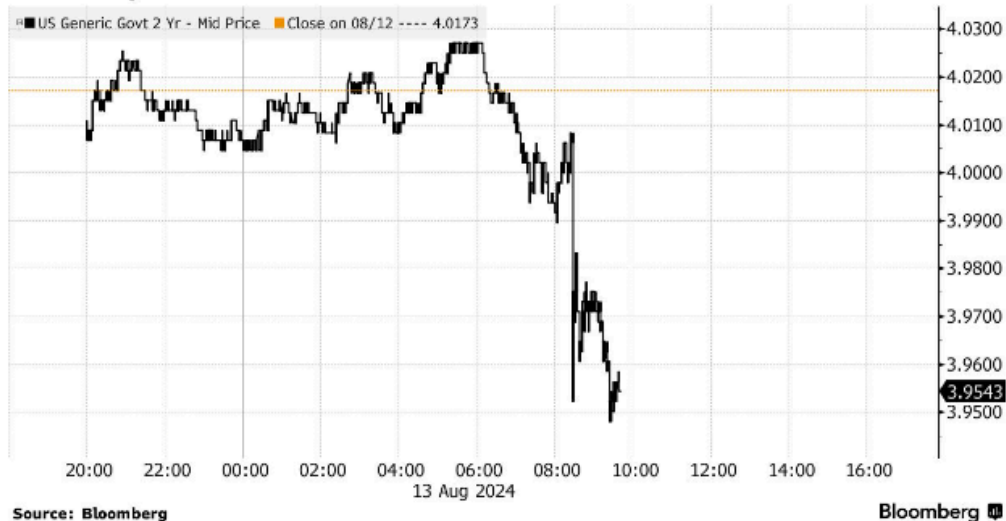
WSJ 기사

Bloomberg: Stocks Climb After PPI as Starbucks Surges 14%: Markets Wrap

생산자 물가 상승 둔화에 주식 상승세

- 오늘 화요일 발표된 생산자 물가 상승 둔화 발표로 연준의 9월 금리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식은 상승세,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생산자물가가 당초 예상보다 느린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지수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생산자 물가 보고서의 항목들이 안정세를 보였다.
- S&P 500은 오늘 오전 12:00pm 가까운 시각 거의 1.06% 상승한 5,401.52, 그리고 나스닥은 1.75% 오른 17,074.51로 상승중이다. 단기 국채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 달러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한편 내일 수요일 중요한 지표인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다.

Treasury Two-Year Yields Slide After PPI



Bloomberg 기사

[미국 대선]

CNN Business: What Kamala Harris has said so far on key issues in her campaign

카말라 해리스의 선거 캠페인 주요 입장들

- 미국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중 많은 부분을 지지한다고 표명하면서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자신만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 **낙태:** 해리스는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보다 더 진보적인 정책을 수용했다. 연방 기금이 낙태에 사용되는 것을 막는 하이드 개정법에 대한 바이든의 지지를 비판했으며, 지난 1월에는 ‘생식권 자유 운동(reproductive freedoms tour)’을 시작하여 현직 미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낙태 클리닉을 방문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
- **경제:** 높은 물가는 미국인들의 주요 관심사로, 유권자들은 바이든의 경제 정책에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해리스는 선거 유세에서 의료, 보육, 노인 돌봄, 가족 휴가 등의 비용을 저렴하게 하고 이용하기 쉽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7월, 해리스는 ‘정크 수수료(junk fee)’ 폐지를 약속했으며, 8월 초에는 항공사가 부모에게 자녀를 옆에 앉히기 위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부통령이 된 이후 해리스는 더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2020년 대선 공약(중산층과 근로자 가정에 생활비 유지를 위한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 제안, 법인세율 35%로 인상 등)을 살펴보면 바이든보다 더 진보적인 성향임을 알 수 있다.
- **소비자 부채:**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학생 대출 탕감 계획을 꾸준히 홍보해 왔다. 약 480만 명의 대출자에게 1,680억 달러 이상의 학생 대출을 탕감했으며, 공무원의 학자금 대출 혜택을 크게 증가시켰다. 또한, 해리스는 의료 부채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보다 대출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의료 부채를 금지하려는 백악관의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 **의료 보험:** 해리스는 7월 말 캠페인을 통해 더 이상 단일 지불 의료보험 시스템(Single-payer health care)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0년 선거운동 기간에는 미국을 정부 지원 의료보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간 보험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의약품 비용 절감과 관련하여 해리스는 경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국가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공정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 **기후:** 해리스는 오랫동안 기후 및 환경 보호를 위해 활동해 왔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시절에는 대형 석유 회사를 고소했고, 상원의원 시절에는 그린 뉴딜 결의안을 지지했다. 2020년 선거운동 기간에는 프래킹 금지를 지지했지만, 7월 말 해리스 캠페인 관계자는 더 이상 프래킹 금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민:** 해리스 캠페인은 7월 말 국경 순찰대 요원 증원에 대한 해리스의 지지와 초당적 이민 협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트럼프의 노력을 인용하는 동영상 공개했다. 올해 6월 백악관은 미국-멕시코 국경 통과를 줄이기 위한 '망명 신청 단속'을 발표했는데, 해리스의 선거 매니저는 7월 말 인터뷰에서 해당 정책이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스라엘/하마스:** 7월 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해리스는 가자 지구의 민간인 사망에 대해 두 번이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인도적 상황과 파괴를 "대재앙"이자 "파괴적"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비극 앞에서 외면할 수 없으며, 고통에 무감각해져서는 안 되며,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연설했다.
- **우크라이나:** 해리스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여섯 번 만났으며, 지난달에는 에너지 지원, 인도주의적 필요, 그리고 기타 원조로 15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올해 초 뮌헨 안보 회의에서 "저와 바이든에게 NATO에 대한 우리의 신성한 약속은 여전히 철통같습니다"고 말했다.

CNN Business 기사

WSJ: Trump or Harris? It's a Tossup for Many CEOs 많은 CEO들, 미 대선 후보자 놓고 고민한다

- 적지 않은 미 기업인들과 금융 업계 지도자들은 낮은 세금, 규제 약화, 그리고 반독점 조사 완화 등을 원하고 있다. 자유 무역을 지지하고 있으며 인기주의와 고립주의 추세로 향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우려하고 있다. 많은 이들은 낙태와 같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의 입장들과 같은 분명한 후보자가 없다는 점이다.

- 이들의 고민을 예를 든다면, 트럼프는 높은 관세를 주창하고 있어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고 카말라 해리스가 더 나은 후보자라는 데 확신을 갖지 못한다. 높은 법인세를 주장하고 있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WSJ 기사

[비자]

Bloomberg: (Opinion) The H-1B Lottery Is Too Easily Gamed. Here's How to Fix It

운이 결정하는 H-1B 추첨 제도 고쳐야 한다

- 매년 미국에서 수십만명의 미국 대학 졸업 외국인들이 H-B 비자를 얻기 위해 추첨을 한다. 그런데 비자를 받는 숫자는 매년 8만5천개로 한정되어 있다.
- 이같은 제도는 지난 20년 동안 진행되어 왔다. 비효율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기준 때문에 고용주들이 좋은 후보자를 채용하는 기회를 제한시키고 있다. 실력이나 능력보다는 운에 따른 추첨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 비자 소지자나 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게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더 좋은 방법은 실력과 능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호주나 캐나다 추첨이 아닌, 교육 수준, 일자리 경험, 나이, 영어 숙련도 등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뽑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숙련도가 높고 임금이 높은 직종의 사람들에게 더 우선순위를 두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Bloomberg 기사

[원유]

WSJ: China's Oil-Demand Growth Slowdown Weighs on Global Outlook, IEA Says

IEA, "중국 석유 수요 둔화, 글로벌 전망에 부담"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국의 소비 둔화가 글로벌 전망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면서, 올해와 내년 글로벌 석유 수요 증가율이 하루 100만 배럴 이하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파리에 본부를 둔 IEA는 올해 글로벌 수요가 하루 97만 배럴, 내년에는 95만3천 배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 추정치였던 97만4천 배럴과 97만9천 배럴보다 약간 낮은 수치이다. 올해와 내년 총 수요는 각각 1억310만 배럴과 1억400만 배럴로 예상된다.
- 올해 2분 전 세계 수요는 하루 87만 배럴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여름철 여행 시즌 강세로 휘발유 수요가 증가한 반면,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산업 연

료와 석유화학 원료의 수요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IEA는 밝혔다.

WSJ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World Trade Sees Calm Before the Tariff Storm: Bloomberg Tracker

세계 무역 안정세지만 곧 '관세 전쟁' 커진다

- 7월에 글로벌 소비자 수요와 수출은 제조 활동을 활발히 가동시키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어떤 면에는 8월의 '관세 전쟁' 직전의 일시적인 고요함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싱가포르, 한국, 타이완 등의 아시아 수출국들이 반도체와 전자 제품 수요 증가로 수출을 주도했으며 운임 상승 부담과 홍해 사태로 인한 선박 우회 운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항만들은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여파를 점차 떨쳐버리는 글로벌 무역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인 현상은 단기간에 그칠 수 있다. 더 많은 국가들이 무역 전쟁과 관세 정책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8월에 미국은 중국산 전자제품, 배터리, 태양광 패널, 의료품 등에 관세를 높여 연간 수입규모면에서 1백80억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유럽은 중국산 자동차에 임시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농업, 항공 등에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제강되지 않은 철강과 알루미늄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는 중국산에 60% 과세, 다른 상품에 일괄적으로 10% 관세를 공언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전기차]

Bloomberg: EVs Need More Aid to Retire Fossil Fuel Cars, Supplier Says

영국 자동차 공급업체, 전기차 보조금 재도입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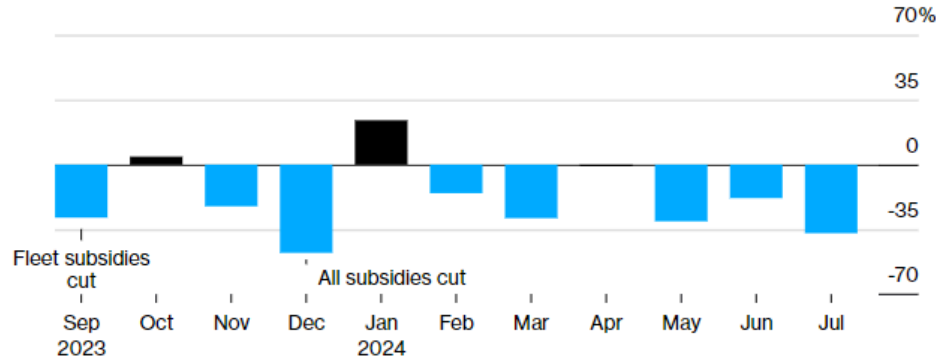
- 영국의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인 다우라이스 그룹(Dowlais Group Plc)은 유럽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단계적 퇴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 국가에서 다시 보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다우라이스의 최고 경영자 리암 버터워스(Liam Butterworth)는 화요일에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수요 감소가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중단하려는 계획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은 2030년까지, 유럽 연합에서는 5년 후까지 연소 엔진이 장착된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종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버터워스는 다우라이스의 상반기 실적 발표 인터뷰에서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자동차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보조금이 반드시 필요

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erman Electric Car Sales Crater 37% in July

Battery-car registrations slump after incentives were removed last year

■ Change vs year-ago



Source: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Kraftfahrtbundesamt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Starbucks Ousts CEO, Names Chipotle Boss as Replacement 스타벅스, 현 치폴레 CEO를 차기 CEO로 임명

- 스타벅스는 현 치폴레 멕시칸 그릴의 CEO인 브라이언 니콜(Brian Niccol)을 차기 책임자로 임명했다. 이는 비즈니스를 재편하고 행동주의 투자자들과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갑작스러운 경영 변화이다.
- 시애틀에 본사를 둔 스타벅스는 화요일, 니콜이 9월 9일부터 CEO 겸 이사회 의장으로 취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현 스타벅스 CEO인 락스만 나라심한은 약 16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CEO와 이사회 이사직에서 물러난다. 그는 스타벅스의 현대적 변화를 이끈 최초의 외부 출신 CEO로, 스타벅스를 글로벌 커피 강자로 성장시킨 하워드 슐츠의 후임이었다.
- 매출 기준 세계 최대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는 비즈니스 부진과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으로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스타벅스는 지난 4월, 카페 방문객 감소로 매출과 이익이 줄어들자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재무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WSJ 기사

Bloomberg: Paramount Begins Job Cuts as Traditional TV Market Languishes

파라마운트, 인력 감축 시작... 전통 TV 산업의 쇠퇴 탓

-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지난주 미국 내 인력의 15%를 감원해 약 2천 개의 일자리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후, 화요일에 대규모 해고를 시작했다.
- 블룸버그가 입수한 내부 메모에 따르면, 회사의 세 명의 공동 CEO는 이번 정리해고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올해 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9월 말까지 해고의 90%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 공동 CEO들은 메모에서 “업계는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파라마운트는 비즈니스를 강화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언급했다.
- 지난주 2분기 재무 실적을 발표하면서 공동 CEO인 크리스 매카시(Chris McCarthy)는 이번 인력 감축이 마케팅, 재무 및 기타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는 케이블 네트워크에서 큰 손실을 입었는데, 이는 전통적인 TV 산업의 또 다른 약화 신호이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Home Depot issues a warning about the economy 홈디포에 드리운 경제 불황

- 홈디포는 최근 소비자들이 경제적 불황을 체감하며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홈디포는 올해 연간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 회사는 고객들이 금리 인상과 경제 약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주택 개량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홈디포의 사업은 주택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높은 금리는 부동산 시장에 제동을 걸고 있다.
- 홈디포의 CEO 테드 데커(Ted Decker)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분기에 금리 인상과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소비자 수요에 전반적으로 압박을 가해, 주택 개량 프로젝트 지출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 홈디포는 지난 분기 최소 1년 이상 영업한 매장의 매출이 3.6% 감소했다고 화요일에 밝혔다. 회사는 올해 전체 매출도 작년 대비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소비자 수요는 약 1년 동안 줄어들고 있으며, 회사는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CNN Business 기사

CNBC: Chinese EV maker Zeekr says its new battery can charge faster than that of a Tesla 중국 전기차 회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충전 속도의 배터리 발표

- 중국 전기차 브랜드 지커(Zeekr)가 화요일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충전 속도를 자랑하는 새로운 배터리를 발표했다. 이번 신제품은 배터리 주행 거

리와 충전 편의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 지커의 초고속 충전소를 사용하면, 새로운 배터리는 단 10.5분 만에 배터리 잔량이 10%에서 80%까지 충전된다. 또한, 영하 10도(화씨 14도)의 추운 날씨에서도 약 30분 만에 동일한 충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 이에 비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자사의 슈퍼차저를 통해 15분 만에 최대 200마일까지 충전할 수 있다고 전했다. 테슬라의 Model 3는 15분 만에 최대 175마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이는 차량의 공식 주행 가능 거리인 363마일의 약 48%에 해당한다.

CNBC 기사

롤러코스터 장세에 놀란 헤지펀드들, 공격적 투자 줄여

엔화 헤지 ETF에서는 2018년 이후 최대자금 유출

지난주 엔 캐리 트레이드(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고금리 통화 자산에 투자) 청산으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경험한 헤지펀드들이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줄이고 있다.

특히 엔화 가치 하락을 헤지(위험회피)하며 투자하다가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뜨거운 맛을 본 상장지수펀드(ETF)에서는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갔다.

헤지펀드 리서치업체 피보탈패스 집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글로벌 거시경제에 초점을 두고 투자하는 헤지펀드들은 1.5~2.5%의 손실을 기록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